

이 대통령과 기독교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기도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내외신 기자 160명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G20 의제와 남북 문제, 한미 FTA와 개헌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환율과 IMF 개혁, 개발 의제 등 G20 회의 의제와 남북 관계, G20 반대 시위와 비례에 대한 대

비책, 한미 FTA, 개헌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G20정상회의는 이제, 국제경제에 관한 프리미엄 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한 언론이 표현했듯이, 세계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임이사사회로서 세계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4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이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는데,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면서,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시점에는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말했다. 또 G20 정상회의의 앞날을 놓고 일부 회의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위기 때는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았지만, 이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경제상황과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제공

조가 잘 될 것인가,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다행히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차관회의, 세프파 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수많은 실무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정해 왔다. 회원국 정부는 물론, IMF를 위시한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 G20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화상회의와 정상간 전화를 통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G20정상회의가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김홍식 국무총리가 한기총을 방문해 이광선 대표회장과의 회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김 총리는 세계적인 행사에 한국기독교가 G20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했다. 김 국무총리는 서초동 참빛교회로 출석하며 장로로서 시무하고 있다.

해 온 힘을 쏟아 왔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차관회의, 세프파 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수많은 실무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정해 왔다. 회원국 정부는 물론, IMF를 위시한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 G20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화상회의와 정상간 전화를 통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G20정상회의가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김홍식 국무총리가 한기총을 방문해 이광선 대표회장과의 회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김 총리는 세계적인 행사에 한국기독교가 G20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했다. 김 국무총리는 서초동 참빛교회로 출석하며 장로로서 시무하고 있다.

사설

변질된 다원주의 시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

1. 21세기, 인간이 건설한 여러고, 유토피아 국가를 구약시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이며, 찬란한 문명을 이룬 여러고 성이 있다. 기생 라합의 고향이며 여호수아가 정탐을 해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무너뜨린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 후, 12지파가 땅을 분배 받을 때 배 나뉜 지파가 차지했다. 하지만 불순종한 결과는 참혹한 실패작이 되어버렸다.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풍려나 무 숲이 울창한 오아시스인 땅 욥토가, 수원지가 오염되고 썩은 목들이 흘러나와, 이 물을 먹는 사람도 짐승도 병들어 죽고, 농작물도 시들어, 수확의 실패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 진리와 진실,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아있는 다원주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능의 홍수, 지식, 기술, 과학능의 홍수, 환경능의 홍수, 물질능의 홍수, 직업능의 홍수, 문학능의 홍수... 그러나 홍수 속에는 생수가 변질되어 마실 물이 없다. 인간이 보기에 좋게 재건한 여러고 성처럼, 변질된 시대에는 모든 가치관, 진리, 신앙도 변질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타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렸다.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갈 것인가? 처방은 하나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수원지水源地에 올라가 뿌리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 이를 받아 수용할 그릇도 새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릇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이요, 혼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불변의 맛을 유지하는 본질의 가치이며, 변질을 막고 참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사는 의미意味, 뜻이며, 실맛을 나타낸다. 50명의 선지자 생도가 새 그릇에 소금으로 담겨져, 수원지에 뿌려짐으로 변질된 삶의 근원을 정화시켜, 여러고 성 전체를 살려낸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변질된 다원주의 세상을 바꾸고 살려내는, 소금으로 새 그릇에 담겨져 하 나님 손에 고쳐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왕하 2장 19-22절에,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한다. 그리고 생도들이 담은 소금을 가지고 수원지에 올라가 물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곡식이 말라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황폐한 죽음의 땅이 희망과 생명의 땅, 풍려나 무 숲, 오아시스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2. 우리는 지금, 여기here and now, 썩어가는 수원지水源을 살리는 소금으로 녹여야 우리는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질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정(웨신)총회 축하와 화합으로 단합대회 열어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함께 일하는 데 열정을 품고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나의 나뭇을 아는 지혜와 열정으로, 총회와 노회와 임원의 이름으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단합대회 주제를 정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제95회 총회와 10월 성노회가 끝나고 새롭



총회장 성홍경 목사

게 선출된 총회장과 임원들, 전국 각 노회의 노회장장과 임원 등이 총회발전을 위한 단합대회를 11월 8일~9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7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가졌다. 아가서 2장10절 말씀을 인용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총회 원로와 감사, 각 노회 중경노회장 등이 참석하여 더욱 돈독한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 이날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2010년 가을의 절정이라는 계절, 급게 물들어 가는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추수의 낫을 기다리는

듯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는 이때 총회와 노회 임원여러분과 자문과 중경노회장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고 화합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화합의 장으로 가는 길은 멀다면서 이번 단합대회를 집 짓을 삼아 총회가 대 교단으로 성장하는데 뜻을 같이 하자고 했다. 또 성 총회장은 한 회기를 무사히 마치고, 각 노회가 가을 정기노회를 마쳤으며, 새롭게 부름을 받고 임금이 된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격려하며 치하했다. 성 총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나서자 아니라, 오직 총성만이 보시고 세워주신 임원들이라고 말하고 임군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일



이 사진은 웨신총회 하계수련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다. 이번 총회와 노회 임원 단합대회는 아직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가자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갈 것을 부탁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단합하여 총회를 살려내고 노회를 살려내는 정을 가지고 함께 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하는 자에게 장대가 보장되며, 함께 일하는데 열정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추수감사

제95회 총회 총회장, 임원, 전국 노회 노회장 임원 및 중경총회장, 중경노회장이 함께하는 단합대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 (송석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지구촌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서기 김준택 목사 (은전교회)



부서기 장장윤 목사 (열린천안교회)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 (한샘교회)



부회의록/서기 고영전 목사 (대림교회)



회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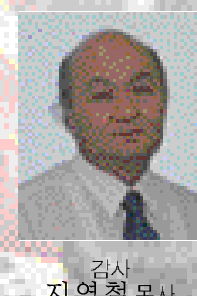
부회계 정일광 목사 (현기문교회)



김사 이일영 목사 (성문교회)



김사 전현우 목사 (온누리교회)



김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 (성임교회)

주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야2:10)

● 장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7 (대명리조트)

● 일시: 11월 8일(월) - 9일(화)까지

웨신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 02)835-2606-7, 팩스 02)835-2608

연락처 : 총무 010-8602-3009 서기 010-4166-2307
홈페이지 http://ws21.kr E-mail:ok@ws21.kr

조용기 목사 최선을 다해 발행인 자리에서 섬기겠다

“국민일보는 여의도순복음의 소유가 아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산물이며, 발행인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3일 오전 국민일보 사옥 우복홀에서 국민일보 발행인으로 조용기 원로 목사가 취임을 가졌다. 조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는 중요한 일을 맡아주셨을 때마다 꿈을 보여 주신다”며 “꿈에서 한 어린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웃으면 얼굴전체가 귀가 되었다가, 다시 얼굴이 되었다가 했다. 나를 보고 그 어린이가 ‘너도 해봐’라고 했는데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그 어린이에게 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어린이는 ‘그래서 너 보고 국민일보 회장이라고 한 거야’라고 말했다”고 발행인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말했다.

또한 조목사는 “꿈으로부터 말고 50년 평생 살며 봐왔던 말씀으로도 보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며 “그러자 문득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

다는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용기 목사가 가문의 소유로 국민일보를 잡하려고 한다면”은 최근의 발들을 두고 “국민일보를 가문의 소유로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은혜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일보는 여의도순복음의 소유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산물이며, 엄연히 문화재단 소속으로 분리돼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국민일보를 소유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조목사는 “30~50대에는 성공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무리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다”며 “그러나 70대가 된 지금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 말고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발행인의 자리에서 섬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축사를 전한 이광선(한기총 대표)목사는 “이 나라의 죽어가는데, 시들어 가던 심령들이 국민일보를 읽음으로써 다시 푸르러지는



조용기 목사 국민일보 발행인 취임

역사가 있길 기도 한다”며 “국민일보가 이 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 또한 한국교회의 WCC와 WEA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일보가 도와 한국교회의 연합일치에도 이바지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식행사는 1부 취임예배와 2부 취임식으로 진행됐으며 1부 취임예배는 김자현(웅성교회

당회장)목사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음지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를 하며 사울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은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이 가는 곳마다 존경으로 합당히 여겼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조용기 원로 목사의 국민일보 발행인으로서의 취임을 축하했다.

제공 뉴스파워 JTN방송

‘성추행’ 삼일교회 담임목사 공개사과 후사임 뜻 밝혀

[메일리안 스포츠팀] 여신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전병욱 삼일교회 담임목사가 1일 교인들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사임의 뜻을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목사가 공개사과를 하고 사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목사는 이날 오전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로 인한 좋지 않은 이야기로 많이 걱정을 끼쳐드리고, 상심하게 해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저는 작년 가을 무렵 교회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 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7월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목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저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 성도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허물로 인해 실망하시고 충격을 받으신 삼일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한국 교회 성도님들, 선후배 목사님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전병욱 목사

전목사는 이번 사건을 보냈던 회개와 지숙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교회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리려 드린다”며 “교회와 상처받은 피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전목사는 삼일교회 신도 가운데 청년단 1만명 이상을 모을 정도로 ‘젊은 교회’로 만든 인기목사다. 지난 9월 기독교 관련 인터넷 매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후 전목사는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당회에서 3개월 설교 중지와 6개월 수찬 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께, 최근 저로 인한 좋지 않은 이야기로 많이 걱정을 끼쳐드리고, 상심하게 하여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전병욱 목사 드림

조용할 목사, 동광교회 새 성전 입당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광교회(담임 조용할 목사)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899-6번지 소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교회를 건축하고 지난 10월31일(주일) 오후 3시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조용할 목사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어 찬양단의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고 조길준 목사(강동노회장)가 기도를, 박성덕 목사(증경노회장)가 역대하 7:15-16절을 봉독한 후 호산나 찬송대의 찬양에 이어 백석예술대학교(박인수 교수 외4명)의 특별축가가 있었다.

이날 노윤길 목사(총회장)는 “성전을 통해 주일 축복”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헌금 송에 조재호 청년(담임 목사이름)의 찬양이 있었다. 아울러 심효택 목사(증경 노회장)가 헌금기도를, 이어 영상을 통해 예배당 건축 과정을 보고한 뒤 건축위원장 전종기



동광교회 조용할 목사 입당예배

장로가 공사보고를 했다. 이어진 조용할 목사 출판기념에서 정인찬 목사(백석신학교장)는 조목사가 집필한 설교집 ‘하나님의 은혜’ ‘김법집’ ‘은혜의 선물’ 등을 서평하였으며, 장원기 목사(증경 노회장), 김충환 집사(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유종현 목사(부

총회장), 장성운 목사(신승교회 원로목사)가 격려사를, 순서자들에서 정인찬 목사(백석신학교장)는 조목사가 집필한 설교집 ‘하나님의 은혜’ ‘김법집’ ‘은혜의 선물’ 등을 서평하였으며, 장원기 목사(증경 노회장) 축도가 있는 후 순서자 및 내빈들의 테이프커팅으로 행사를 마쳤다.

“한발 대전을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소서”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주최 ‘2010 대전성시화대회’가 10일 오후 3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2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기도와 찬송, 말씀

으로 한발 대전을 성령의 불로 달구었다.

대전 2250개 교회와 95개 선교단체 등 35만 성도들의 연합으로

하나가 된 대전성시화대회에서 김인중 목사는 “복음전도”에 대해 강조했다.

김동모 목사(대전 영락교회,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대표회장 이영환 목사의 대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영환목사는 “대전 2250개 교회와 95개 선교단체와 35만 성도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대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150만 대전 시민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대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목사는 성령의 새비람이 대전 땅에 불어와 회개가 일어

나고, 흠여졌던 마음이 하나 되어 거룩한 대전을 향해, 나아가 성시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이루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기독교연합회장 오정호목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중흥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2250개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박상근 목사(신석교회)가 성시화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윤광현 장로(대전출리물교회장 역임)가 대표기도를 했다.

이어 주강사로 나선 김인중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안산 동산교회)는 고린도전서 4장 5~6절을 본문으로 “지금에는 전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대전이 성시화가 된다”고 말했다.

뉴스파워

자지스티임즈 | www.JTNTV.kr JTN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번(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행요령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18230-0032, 0034, 02) 팩스 02741-0031
▶대표 : 011) 469-6574, 02741-0031(팩스 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사님 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표어: “좋은 땅이 되라! (마13:8)”

“좋은교회 어디 있나 우리교회 좋은교회”

좋은 성도 따로 있나 우리 모두 좋은 성도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철

2010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보 밤 예배	수보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홍남서로아카데미	월요일 오전 11:00
2	배목교실	주일 오전 10:00
3	학자교실	수요일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평일 시간
5	오들미 육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오들미	주중 매일
8	제자훈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병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홍성선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추수감사 **열두광주리 기도원**

하나님 나라는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김평호 목사

- 열두광주리 기도원 원장
- 다복교회 담임목사
- 선한목자 부흥사회 대표회장
- 민족복음화 부흥사회 상임회장
- 목회(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김평호 목사 부흥회 특징

-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 말씀을 이루는 성회
- 찬양의 은혜로 은혜가 충만한 성회
-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과 회복되는 성회
- 사랑의 회복으로 새로운 도전과 결단되는 성회
-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강한역사(예언, 치유) 성회
- 은사를 받게되고 은사의 열매가 맺는 성회
- 물결이 회복되어 축복의 물결이 열리는 성회
- 내적 치유와 변화되는 성령성회
- 교회 기도원이 부흥되는 축복성회
-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회

집회 초청 받습니다. (개척교회 · 미자립 기도원 헌신합니다)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
- TEL(FAX) : 031-535-6975 HP : 010-8411-0191
- E-mail : gksksa6975@paran.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중앙교회**
chun cheo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추수감사

2010년
공공과 기대하는 일을 살리는 역동성으로 삶이 빛나게 하소서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12: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2:00
수요기도회 저녁 7:30-8:30(수) 새벽기도회 매주일 05:30
주일학교 오전 11:00-교육관 학생, 청년회 저녁 7:00(매주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첫째: 말씀의 불을 토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둘째: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셋째: 주님의 섭리와 연결된 축복된 교회입니다.

Pastor REV young nam Park
교역자: 김광진 전도사 장로: 김조웅
주식반주: 홍희선 찬양대장: 오종현
파트반주: 박신애 김현선 안석식 박은식 조연태

주소: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2가1번지 현대아파트 단지내
교회전화: 033)255-2205 목사관: 033)242-4280
목사님: 011-364-4280 7페이지 http://cofe.daum.net/ccsalem

조현오 경찰청장 환영 오찬기도회

(재)참수리 사랑(이사장 조응목 목사)은 10월14일(목) 오전 11시 AW 컨벤션 센터 2층(구하림각)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환영식에서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가 내빈을 소개하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악대의 팡파레가 있었으며, 박노아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1) 대통령과 나라안정을, 2)경찰청과 민생치안을, 3)경찰선교와 교경발전을 위하여, 안재철 목사(경찰청 경무실장), 고제동 목사(서울청 경무실장), 김재승 목사(공공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이어 임태대 장로(교경중앙회

후원회장)가 성경을 봉독하고, 경찰악대의 특별연주와 영등포교회 여성합창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조응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안이성 목사(교경중앙회 대표회장)는 환영사에서 경찰청장 환영 및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갖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민생안정과 치안질서를 위해 치안총수로 오신 조현오 경찰청장과 각 국관들, 경찰청 교회 기독신우회 회장, 전국 경무, 각 기독교 단체 대표 여러분께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조현오 경찰청장의 인사말씀과 꽃다발증정이



조현오 경찰청장 환영 오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졌다. 또한 이상운 목사(작전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용도 목사(고문)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김봉희 목사(분회 총무)의 광고에 이어 조병환 목사(분회고문)의 축도로 마쳤다.



이사회를 마친 후 임원진의 기념촬영을

이날 제5회 이사회는 대표이사 정기갑 목사가 사회로 진행되어 2010년도 이사회 보고와 참성한 이사장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 2011년도 이사회를 계획 발표하

고, 신문, 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결의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는 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국교회언론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한국교회 파수군 역할 충실히 감당 해와

한국교회언론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001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국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대변하며, 때로는 교회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 왔다. 이는 교회와 관련된 사안에서, 언론, 사회, 정부에 대하여 기독교의 생각이 무엇임을 분명히 밝혀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외침도 병행하였다. 즉 목회자의 복음적 책무와 자정을 위한 선언과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10여년간 활동한 일은 다산하다. 중앙 일간지의 점술, 무속, 역학, 운세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로 광고 중지하고 축소 효과를 거두었고, 지상과 방송의 기독교와 관련하여 왜곡된 보도에 대한 꾸준한 시정 요구를 하여 해명과 일부 프로그램의 중지 효과, 공중파 방송의 기독교 관련 보도의 문제점 지적과 사과요청을 하였다.

또 정부의 기독교와 관련한 정책에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반 기독교서적의 출판과 신문광고 중지요구와 실효, 반 기독교 사이트의 활동에 대한 대처와 감시, 초등학교 신학건물에 특정종교 문양에 대한 시정요구와 같은 외적인 문제에서 효과를 거둔 활동이 있었다.

내부적인 것으로는 기독교 사회활동에 대한 각종 자료를 조사 발표하여 통계를 발표하고, 기독교계의 활동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였고, 사회적 이슈에서 교회와 관련된 내용에서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여 기독교계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 분석에 대한 칼럼을 교계 언론에 연재하여 미디어 이해를 도왔으며, 일반방송과 기독교계 방송에 출연하여 교계와 사회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약 900여 회에 달하며, 교계언론



한국교회언론회 창립 10주년 감사

과 일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약 2,300여회에 달한다.

또 일선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중앙 일간지 종교·문화 담당 기자 초청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기독교계 언론사 데스크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교계 이슈에 대한 기자 회견을 10여 차례 진행하였다.

제1부 예배에서 이사장 최성해 총장(동양대학교)은 인사말을 통해, 교회 외부의 공격에 대한 대응보다 한국교회 내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최 이사장은 '한국교회가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소용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트위터 활용을 통하여 젊은 세대를 교회로 불러 들여야 하며, 복음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회에 유효하므로 한국 사회를 리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설교에서 은혜와진리교회 조응목 목사는 '한국교회가 거룩과 명예를 존중하여 여겨 우리 사회에 보편적 상식화를 통해, 교회의 권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을 신뢰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하며, 이것으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한국교회언론회의 지난 10년이 한국교회에 대하여 정론직필에서 떠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칭찬하고, '앞으로도 결손의 힘과 아름다운 변화를 통하여 언론의 바른 역할에 대한 선도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NCK 회장 전병호 목사는 축사에서 '지난 10년간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한

부분을 인정하며 축하한다'며 그 중에는 '복음적 가치로 교계 안팎의 문제에 적극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회의 일치, 화합, 평화 통일에 대한 문제에 교회언론회의 역할을 기대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이사회, 임원회, 집행위에서 임기 2년의 제6대 대표로 재추대된 김승동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날 단군상 문제를 위해서 애쓴 일과 또 지상과 방송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방영 때문에 힘쓰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도 언론회 대표로서 이와 같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이날 제1부 예배에서의 순서는 집행위원장 황규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사장 최성해 총장의 인사말, 대변인 이석주 목사의 기도, 성경봉독에 이사장재규 목사, 특송에는 헬시바 중창단, 설교에는 조응목 목사, 축사에는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NCK 회장 전병호 목사, 축도에 한기총 명예 회장 길자연 목사가 각각 맡아 수고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일부 임원만 개선하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회장단과 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마쳤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최성해 총장, 대표 김승동 목사, 부이사장 소강석 목사, 공동 대표에 박영를 목사, 원광기 목사, 양병희 목사, 원효식 목사, 그리고 신임으로 공동대표에 한상림 목사를 추대하였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에 황규식 목사, 대변인에 이석주 목사, 서기에 정재규 목사, 회계에 이명수 장로, 사무총장에 이병대 목사를 임원으로 추임하고 마쳤다.

JTN방송, 신문 제5회 이사회 감사예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필곡의 붓이 되어 복음전파와 문서선교에 남는 생을 다 바쳐 사역에 힘쓰겠다는 지저스타임즈 및 JTN방송 대표이사 정기갑 목사는 10월 29일(금) 오전 11시30분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춘천중앙교회(담임 박영남 목사)강원 춘천지사장에서 제5회 이사회 및 감사예배를 드렸다.

본지 사무총장 장창은 목사(한국기독교찬양가협회의 대표총재)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춘천지사장 박영남 목사가 기도를, 토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주제로 사장 소진우 목사는 '열매결에 한 일인줄 알았는데'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소진우 목사는 사장을 맡은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다며, 사장을 맡아달라는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열매결에 신문사 사장을 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였고, 신문사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정태종 목사(사무국 부장)가 '이 어인 은혜인가'를 찬양하고, 대표이사 정기갑 목사가 광고

및 인사를, 대전총청 중부권 지사장 박양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사무국 부장 정태종 목사(개혁신학 교수)의 사회로 2부 기도회가 진행되어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상임이사 서영웅 목사, 2. 한국교회와 이사들의 사무하는 교회를 위하여, 천현옥 목사(교신, 코람데오대표), 3. 지저스타임즈 및 JTN방송 문서선교를 위하여 윤영이사 김광호 목사(열두광주리 기도원원장), 4. 국내 16개 지사 및 해외 12개국에 파송되어 있는 지사를 위하여 합심하여 각각 기도했다.

길자연 목사 "왕성교회 당회도 적극 지원하기로 해"

예정합동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 길자연 목사, "교회가 전폭지원"

예정합동총회(총회장 김삼봉 목사)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된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칼빈대 총장)는 자신이 사무하고 있는 왕성교회 당회가 자신의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회장을 두번이나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총회에서 추천된 길자연 목사는 당회와 교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때까지 기도회를 갖는 등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자신도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자연 목사를 찾아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나서줄 것을 요청

했었던 홍재철 목사(부천 경서교회)가 함께해 길 목사의 한기총 출마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사람이 다시 대표회장 선거에 나오는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고, 예정합동교단이 연합운동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워낙 커서 개인적 부담에 불구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선포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1. "민민에게 복음을 전하며라"
"민민에게 복음을 전하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2.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3.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4층 대 예배실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청년강소
		오전 5시	5층 두란노홀
주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세움당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세움당
주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연대
주일	중등부	오전 8시	2층 청년강소
		오전 11시	2층 청년강소
주일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청년강소
		오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력단지)
대표전화: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061)278-0693

대한예수교 공덕교회

표어: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이광수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찬양 기도	저녁 9:00	청년회도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팽택시 팽성을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주천성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담임 박원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041-854-3676
HP. 018-320-1507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하라

성경: 창세기 17장1절-27절 찬송가 341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입혀서 자신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언급하시고 할례를 통해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복의 가문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8절-19절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뜻을 이루어 가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실패하거나 지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2. 비웃을 지라도

성경: 창세기 18장1절-15절 찬송가 400장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손님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믿지 않을 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14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비웃을 지라도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비웃을 지라도 축복과 기적으로 일하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3. 기억하라.

성경: 창세기 18장16절-33절 찬송가 411장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의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심판보다는 축복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인 50명에서 40명으로 의인 40명에서 결국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을 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삼, 사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4. 하나님의 관심은 따로 있다.

성경: 창세기 19장1절-22절 찬송가 395장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찾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최악에 대해 철저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롯 가족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와 고난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5. 유단금지

성경: 창세기 21장23절-28절 찬송가 340장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가족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잊지 못하고 뒤 돌아보고 말았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6절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무엇이 그리 부족했던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니 세상을 향해 돌아서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6. 버리고 따라가자.

성경: 창세기 19장29절-38절 찬송가 456장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뿌리깊은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 롯의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타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7. 죄절금지

성경: 창세기 20장1절-18절 찬송가 395장

아브라함은 과거에도 애굽에 머무르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동일한 거짓말을 그랄에서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사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시키고 일하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8. 좌절금지(2)

성경: 창세기 21장 1절-7절 찬송가 345장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신을 이어서 대를 잇는 장자를 갖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창15장 3절 말씀을 보면 장자를 갖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신체학적으로 아이를 갖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실현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9. 이제 그만

성경: 창세기 21장 8절-21절 찬송가 432장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농락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모자를 내어 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또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하시면서 그의 근심을 풀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도 풀어주시길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0. 너 사랑이 있는가?

성경: 창세기 21장 22절-34절 찬송가 278장

아브라함은 이웃과 화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물을 파놓은 우물을 모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뺏아갈지라도 그는 그들을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을 받았음이요' 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순종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성경: 창세기 22장1절-19절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속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솥탕을 제물로 준비하셔서 이삭을 구원하신 사건과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순종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경: 창세기 23장 1절-20절 찬송가 399장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시대가 도래 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지내기 위해 헷족속 예브론에게서 토지를 사는데 특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땅을 일부나마 직접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3. 족합니다.

성경: 창세기 24장1절-67절 찬송가 465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에 관한 평예로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하였고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세상이 기억하지 못할 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가정을 넘어 가문까지

성경: 창세기 25장1절-18절 찬송가 489장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킨 후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은 본문에서 불과 몇 구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다거나 특별한 시험을 내리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사에게 복을 주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을 때문에 가정의 축복을 넘어 가문의 축복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꽃을 가꾼 우체부



100년에 한번 핀다는 꽃, 소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앨레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우체부가 있었다. 그는 약 50마일쯤 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했다.

어느 날 요한은 마을로 가던 중 모래면지가 뿌연게 이는 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갔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황폐한 거리를 오가며 남은 인생을 보내겠구나. 이걸 너무 허무하잖아 ..." 황폐하고 파란한 길을 걸으며 요한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러다 무릎을 탁 치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다면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그는 다음날부터 주머니에 꽃씨를 한 움큼씩 넣어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배달 가는 틈틈이 그 꽃씨들을 길가에 뿌렸다.

그 일은 그가 50여 마일의 거리를 오가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점차 요한은

꽃노래를 부르며 우편물을 배달하게 되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가 다니는 길 양쪽에는 노랑, 빨강, 초록 등形形色색의 꽃들이 다루어 피어났고 갈따라 꽃들이 쉬지 않고 거리를 꽃내음으로 가득 채웠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웃을 일이 많아졌다. 그 꽃들을 보며 요한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황막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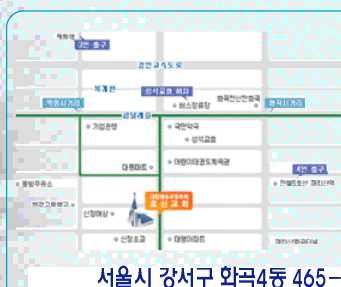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을 재현하는 교회

꿈내로 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신교회

예 배 안 내			
예 배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 당
오전동시예배	주 일	오전 11:00	제2성전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4:40	제2성전
주일오후예배	주 일	오후 5:30	본 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본 당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9:30	본 당
월요비전컴퍼런스	월요일	오후 8:30~10:30	제2성전
유치부	주 일	오후 1:00	유치부예배실
주일학교	주 일	오후 1:00	제2성전
중고등부	주 일	오후 2:00	본 당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2성전
	주일	오전예배후	본 당
리더교육	화요일	오후 7:00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근처역 4번 출구(KF) 앞 03번
 마을버스 탑승 공작 세탁소 앞 하차
 목동역 3번 출구 6628, 6630 성석교회,
 남부시장 하차(도보로 10-15분)

6628, 6630, 6716, 6714, 6629번
 성석교회 하차(도보로 10-15분)

대표전화 02)2644-1621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465-1

http://hyoshin7.com E-mail: park7300@hotmail.com

구원론

롬 7장 전체에 바울사도가 죄 성을 예기하고 있다. 롬 7:5~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방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섬김것이요 의문의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는 죄성이다. 죄성(죄의 본성)으로 번역 되어야한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죄가 아니다. 원죄로 인한 죄성이다. 원 죄는 롬5:12절이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이렇게 한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이게 죄성이다. 아담 때문에 죄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롬8:1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보혈 V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성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곧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뱀에 독 사방의 독이 들어왔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는 모든 뱀의 독 사방의 독이 육체에 죄성으로 들어온 것이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리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 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속에 거하는 죄성이니라. 할렐루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원치 아니 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속에 거하는 죄성이니라. 할렐루야!

21~23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영은) 하나님의 법을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고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이다. 이게 중생의 거듭남(딤후3:15)으로 연결이 되어야하는 말씀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됐느냐? 그게 아니고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걸 반제단에 있던 여호와의 불인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

이 죄성을 태울 때 죄와 사방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 되는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여호와와의 불의 불로... 그랬을 때 비로소 딤후3:15절의 중생의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고 그 원죄를 받고 태어난 우리에게서 원죄로 인한 죄성으로 생겨나서 허물을 지었다.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임마누엘성교회



감정의 능력을 만자!

왕하 2:11 “엘리사가 가로와 여호와의 사십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1. 2절 : 뱀엘 2. 4절 : 여리고 3. 6절 : 요단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일이 생길 때, 사람만이 아니라 능력도 바뀌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60-80년대까지 대 부흥의 역사에서 오늘날은 점차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야 하고,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대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가 망한 원인은 신라 땅에 사찰과 승려가 많았더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기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많고 승려가 많았는데 왜? 신라가 망했습니까? 우리들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며, 점점 교인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난리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우리 모두는 엘리사가 받았던 그 능력의 7감정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에게도 능력을 거쳐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1]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능력을 받기 위해 엘리사를 끈질기게 따라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하2:1 “여호와와 사십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뱀엘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까지 끈질기게 따라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상19:19-21절에 엘리사는 엘리사를 지목하여 양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립하는 모든 우상숭배자들의 죄악을 깨뜨리는 데 그의 광성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장차 막힐 일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역할이 계속되게 하였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만민에게 계승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역을 계승할 영적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28:1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제자 양육의 필 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능력자로 인정 받던 엘리사와 엘리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과연 엘리사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 엘리사가 가진 것 +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 것은 그의 승천의 서두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엘리사가 승천하기 위해서는 요단 강 건너편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기가 그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레아 모세가 죽었던 장소에 더 가까이 이를 수 있고, 가장 별시를 받고 있던 요단 강 건너편의 땅도 영광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인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사와 엘리사도 배를 타고 요단 강을 건너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임국할 때 요단강을 가르게 했듯이(수 3:7),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존귀케 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듯이, 엘리사는 자기의 겔옷으로 요단 강을 갈랐습니다. 지팡이나 겔옷은 물 다 그들의 직무의 “표지”(insignia)였기 때문입니다. 옛적에는 이 강물이 법에 굴복했고, 지금은 선지자 엘리사의 겔옷에 굴복했습니다.

선지자들이야말로 법에 굴복했던 자들에게는 법과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승천한 후 엘리사도 능력을 행합니다. 엘리사가 승천 직후 일어난 상황으로 엘리사의 선지자적 승계가 요단강 가를과 엘리사의 권한 위임으로 증거됩니다.

엘리사가 행한 여리고에서의 사랑과 뱀엘에서의 저주라는 상반된 것이 적들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바, 이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엘리사의 선지자적 정통성을 확증시켜준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듯 오늘날 교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감정의

임용재 장로

강남중앙침례교회



능력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받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등을 하지만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能力 = 힘 -- 육체의 힘 -- 체력(體力) ---- 식물을 먹어야, 땀을 흘려야 정신의 힘 -- 지력(智力) ---- 공부, 학문을 배워야, 영적인 힘 -- 영력(靈力) ---- 성령을 받아야, 땀 흘려 기도해야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능력을 받아야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지 능력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은 바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 능력, 곧 힘은 3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육체적인 힘은 바로 체력을 말합니다.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영양가가 있는 식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보약을 먹기도 해야 합니다.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 운동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신의 힘으로 정신의 힘은 바로 지력을 말합니다.

지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밤새워 공부하거나,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요즈음 학생들은 지력을 얻기 위해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몇 군데의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칼럼

죄에서 해방된 사람

스코틀랜드에 부트스라고 하는 애국자가 있었다. 그가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시절에 그만 에드워드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고향 뒷산에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죽을등살중 혈혈 단신으로 도망을 했지만 점점 포위망은 좁혀져 왔다. 기진맥진하여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멀리 않은 곳에서 귀에

익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황제의 군대가 부트스의 애견을 풀어 주인의 냄새를 맡게 하고 부트스를 찾아내도록 꾸민 것이다. 그는 절망 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은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기고 기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제 그는 한 걸음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 그런데 말예요. 꼭대기에서 그 너머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시냇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어요? 부트스는 너무나 반가워 뒤통다시피 내려가 시냇물에 몸을 숨겼다. 곧 개들이 휘파라 내려왔다. 그러나 시냇가에 도달해서는 주인의 냄새가 없어져 버렸으므로 허공을 향해 배앓이 짖어댔 뿐이었다. 마귀는 부트스의 애견을 앞세운 황제의 군대처럼 우리의 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 살지 못해, 아무리 교회 다려도 너는 소용이

없어. 너 과거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마귀의 그 고소는 사실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혈의 강물에 몸을 던져 잠그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따라오면 마귀가 더 이상 추적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JTN방송 논설위원)“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세계명성교회

WORLD MYUNG SU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성교회 신앙의 지표 :
1.영혼구원 1.전도복합 1.상전건축 1.세계선교 1.구제봉사담임 최남복 목사
Pastor Rev. Choi Nam Bo

- 교육전도사 : 이재훈
- 반주(피아노) : 사친아 / 반주(올가브) : 최희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화요 기도	화요일 오전 10시
주일참예배	오후 3시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오후 2시
새벽예배	매일 오전 5시	학성회	토요일 오후 2시
			주일 오전 11시
금요기도	금요일 오후 9시	청년회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전 11시

주소: 131-103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35-3
제2상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정리 207-1
홈페이지 : http://yeajeon.onam.com
☎ 교회 : 02)2248-0955 031)575-0691 FAX 02)2248-0955
사택 : 02)436-4579 H.P 010-5346-0955

추수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목 목사
(본지 운영자)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참예배	오후 2시	학성회	토요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오전도구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8시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상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목회자칼럼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회법률(教會法律)

(목회자가 억울한 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회의 법에 관하여 (회의의제원칙들)
4). (예 신).

제 25장 헌법개정(憲法改正).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파관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하여, 총회는 그 결과(結果)를 공포(公布) 시행한다.

제2조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개정.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信仰告白)과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시 채용(採用)하여야 한다.

제3조 총회의 개정의안(改正議案) 승부. 총회는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총대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노회의 개정안 승부. 헌법 개정을 원하는 노회는,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헌법(憲法)을 개정(改正)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議案)에 대하여 분장 제1조를 준용(準用)하여 결정한다.

5). 교회정치 문답조례.

「449 문」헌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

(답) 헌법을 개정하되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1).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개정, 총회가 먼저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파관수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으면 개정할 수 있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수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시행한다.

(2). 신조와 대소요리문답의 개정. 신조와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려고 하면,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수 3분의 2 이상과,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택(採擇)하면 개정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수를 총회서기에게 보고(報告)해야 한다. (단),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총회 수의권은 노회로 보내기 전에 특별위원 15인 이상을 목사와 장로 중에서 택하여,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超過)하지 못한다.

(3).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견을 받아 각 노회로 수의할 수밖에 없으나 결정은 ①항 ②항에 의한다

(4). 정치나 권징조례나 예배 모범을 개정하자는 총회 수의 권이 노회파관수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으면 총회는 마땅히 이를 공포 시행 한다.

(5). 신조와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자는 총회 수의권이 노회 3분의 2 이상과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可票)를 얻으면, 총회(總會)는 마땅히 이를 공포 시행(施行)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를 반대하려고 이성한 해석(解釋)을 할 수 없다. (정치 제 23장, Presbyterian Digest, pp.51. 328).

「450 문」노회의 투표결과를 누가 증명하느냐?

(답) 본 노회 회장과 서기의 서명날인으로 증명한다(Rid, p. 330).

「451 문」각 노회의 투표수는 누가 계수하느냐?

(답). 총회가 위원을 택하여 계수하여 보고하게 한다.

6). 헌법적(憲法的) 규칙(規則).

장로회정치는 헌법 밑에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위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각급교회마다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필요를 좇아 제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은 오직 자기 관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규칙은 교회마다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각양각색으로 획일적이지 않다. 그러나 헌법적 규칙은 헌법은 아니면서도, 헌법과 같이 전국교회에 동일하게 그효력이 미치는 규칙이다. 헌법을 제정할 때와 반발하게 1962년 수정 1964년판 헌법에 비로소 나타났고, 고려측은 1981년판 헌법에 비로소 나타냈다. 기강측과 통합측 헌법에는 아직이 헌법규칙(憲法規則)이 없다.

다음호 계속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담임, 본지 교문

요한복음 강해(1)



박명남 목사
부천 새이원 장로교회 담임,
건국대학교 선교사 아카데미주임교수, 신학박사

제 1장: 태초太初 in the beginning 부터 말씀(道)이 있었다(요1:1-13).

1. 사도요한이 증거 하는 7가지 표적表徵sign 사건과, 7가지 계시啓示

1) 7가지 표적表徵sign ① 가나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요 2:1-11) ②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요 4:46-54) ③ 38년 된 앓은병자를 일으키심 (요 5:1-9) ④ 오천 명을 먹이심 (요 6:1-14) ⑤ 물 위를 걸으심 (요 6:16-21) ⑥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요 9:1-34)

⑦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요 11:1-44) 2) 7가지 계시啓示 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6:35,45) ②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1:4,9,8:12,9:5) ③ 나는 양의 목자이다. (요10:7) ④ 나는 선한 목자다. (요 10:11,14) 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11:25) 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⑦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15:1,5)

2. 태초부터 영원까지from beginning to forever, 현재 진행형現在 進行形의 말씀, 하나님

1)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① 태초太初 in the beginning 의 의미(요1:1,창1:1) ②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요1:1-2) ③ 말씀과 창조의 사역(요 1:3,창1:1) ④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요1:4) ⑤ 세례요한의 임무- 0 태에서부터 은혜를 받다. 0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하다.(요1:6-7) ⑥ 자기 땅과 자기백성(요1:9-12)에게 오다.

2) 태초太初 in the beginning 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으로, 창

세기가 우주만물의 창조기원, 창조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창조, 영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말씀道이 있었고, 그 말씀道이 하나님이시며, 말씀道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한분이시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은 계시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들이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 삼위의 공동사역을 계시하는 대목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은 하나님이기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소망도 생명도 없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밝아지고 생명이지만, 빛 밖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암흑이고, 절망이며 죽음이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400년이라는 선지자도 없는 암흑시대를 지나,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걸치고 외치는 이가 나타났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다음호에 계속

<비평>

이런 국회의원들이 정실특채 질타했다니

제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으면서 남의 눈 티끌만 따진 국회의원들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의장이 처남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부장 비서실장은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다. 1급은 직업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계급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가까이 근무해야 될까 봐. 홍 부의장 처남은 오랫동안 대기업에 근무했다고 하나 국회의부장 보좌 업무를 감당할 자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홍 부의장은 며칠 전에도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의 28살 아들을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4급은 입법고시에 합격해 평균 8년 걸려 승진하는 자리다. 홍 부의장과 노 의원은 충북 청주시의 인접한 지역구 의원이고 고등학교 선배 사이다. 노 의원은 민주당 몫 국회의부장 선출 때 홍 부의장을 적극 도왔다. 국회에 이런 관계가 이 두 사람뿐이겠는가.

민주당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보좌관·비서관을 채용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라고 변호했다. 사실이다. 문제는 공정한 추천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을 채용하는 의원도 있지만 일부 의원은 친

인척을 맞추천하거나 후원회장의 자녀, 친인척을 채용하면서 잘못이라는 의식조차 갖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 등 총 7명을 주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거듭나게 채용할 수 있다. 정 호소서(사천 곡원군 작가) 치 한량들이 윤이 좋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일가친척 여러 명을 국회에 취직시킬 수 있으니 국회의원처럼 부가가치 높은 직업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 특혜 채용은 행정부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지난 9월 유명한 의교봉사부 장관 딸의 5급 특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답하는 공정사회가 이런 거냐”며 비난했었다. 몇 달 전까지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을 해 왔다.



내 삶을 바꾸는 7가지 용기

1.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대서대성(大思大成)하라.

-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즉행집안(卽行集完)하라.

- 놀다놀며 두려운 상황에서도 즉시 행동해서 완수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누란지세(累卵之勢)에 백절불굴(百折不屈)하라.

- 계란을 쌓아올린 듯 긴장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여리박빙(如履薄冰)에 불포기인(不抛加忍)하라.

- 살얼음판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포기 대신 인내를 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 설상가상(雪上加霜)에 초지일관(初志一貫)하라.

-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혹스런 상황에서도 처음의 열정을 되새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 기호지세(騎虎之勢)에 배수지진(背水之陣)하라.

-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듯 긴박한 상황에서도 배수의 진을 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 일촉즉발(一觸卽發)에 현존임명(現存任命)하라.

-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현재의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추수감사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성령의 양식 '우'는 종이시나 주의 종이 아닌 것은 재물이요 믿노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현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대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대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nister)



"모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역부살 할과 온 유령과 사망의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들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포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2층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	대예배실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 5:00	4층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4층
	생당대학	금요일	나사렛성전		나사렛성전
셀 예배	오전 10:00, 오후 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광명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선 목사 전화 02)430-9107, 02)3402-2714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신에 맞게 꾸준히 하라! (24)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 9)

50대가 되어 수업을 시작한 교수 부부가 아침이면 일어나 목욕을 가른다. 수업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한 지 벌써 8년째라는 이 교수는 체력 테스트 결과 놀랍게도 30대의 심폐 기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끝만 노인이지 속은 청년인 셈이다.

허리가 아파 결근이 잦았고 위장장애 만성피로 등 잔병이 많아 삶에 의욕이 없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건강관리는 꾸준한 운동, 운동은 역시 수영”이라며 환한 얼굴로 넘치는 건강을 과시한다. 건강관리의 기본원칙은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남이 먹는 보약이나 건강식이 좋아 보이고 색다른 방식의 건강법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한때 해외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물개사냥, 뱀사냥, 코뿔소사냥 등은 이제 옛말이고 심지어는 요즈음 “요로병”이라하여 자신의 오줌을 건강음료로 매일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니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그저 허탈할 뿐이다. 상식이나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건강법은 심리적 효과가 있을 뿐 실제의 건강증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 기이한 행각

을 하는 사람치고 건강에 자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어느 것 하나 실행치 않고 그러다보니 물에 빠지면 귀가 번득 뜨인다. 새로운 방법도 얼마동안 하다보면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폐기처분한다. 갑수목물은 허해지고 약순환은 계속된다. 건강에는 비약이 있을 수 없다. 정말 건강을 원한다면 술에대는 육식과



조급한 성격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열매를 만들어 달 수야 없지 않은가.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건강은 생활의 문제다. 생활의 현장에서 건강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것만이 건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과학적인 원리가 입증된

한가지 건강법이라고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할 경우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 등에서 팔이 날 정도의 강도로 하루 20분 이상, 주 3~5회 정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시작했으면 효과를 느낄 때까지 초지일관해야 한다. 보통사람의 경우 4~6주, 허약한 사람의 경우 8~12주 정도 지나야 운동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후배가 “나도 빨리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을 토로하길래 “하나님의 사람은 캠퍼스 시절 4년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경험이 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물론이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비되어야 한다. 신앙의 성장에는 아무래도 연륜이 필요하다.

온전한 신앙성장은 전인적 성장(지식, 인격, 정서, 경험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 신앙에 있어서 “속성재배”란 본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성리의 강물을 따라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이 신앙성장의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황성주 박사 “성경으로 본 건강학”

묘동교회(정태봉 목사)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묘동교회에서 10월 10일(주일)오후 2시30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답십리 정태봉 목사에서 임직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태봉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김의홍 장로(부노회장,소망교회)가 기도를, 필립성가대의 특별찬양이 들려지고, 노회장 김지철 목사는 “성령의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이어 장로장립 2명, 안수집사장립 10명, 권사취임 14명 등이 각각 임직을 받았다. 아울러 김학현 목사(부노회장,임심교회)가 권면을 하고, 교회가 임직자에게, 임직자가 교회에 예물을 증정한 후 축하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 오세조 장로가 답사를, 김광춘 장로가 인사 및 광고를, 이수중 목사(경경노회장, 은누리교회)축도로 회회했다.



묘동교회 임직식에서 기념촬영

토브의 강단(칼럼)

심방에 대하여

심방의 시범적 모범 자는 예수님 이시다. 천상에서 지상의 성도를 방문하신 일 지상 생활의 다양한 환경과 문제들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방문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신데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은 봄,가을에 일제히 심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심방이란 말이 단 한곳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김광석 목사

1: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심오임을 유합 세”이때에 심방하다는“히스토레오”로서 (1)질문하다. 조사하다. (2)질문이나. 조사에 의해 알다 배우다 (3)진숙하게 되기 위해 방문하다. (4)얼굴을 닦고 알다. 등의 뜻이다. 이 말은 원래 “히스토르한 말에서 유래 했는데 이것은 유식한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심방은 가정이나 개인을 방문해서 형편이나 문제점 등을 질문하거나 조사하여 알고 어려운 점을 피차 해결책을 차고 그로 말미암아 심방 자와 피 심방 자의 사이가 친숙해지며 이러

한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 동행자의 자세 (1)예의를 갖추고 인내의 자세로 (2)화목한 대화의 자세로 (3)이간되는 말 절대로 삼갈 것

* 심방 받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기쁘고 즐겁게 심방 받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1)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며(눅10:38-42) (2)물질의 축복이 오고 (왕상 17:10-16) (3)가정의 문제가 해결 되고 (왕상4) (4)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눅 4:18)* 심방 때 갖추어야 할 것 : 예배 상, 방석, 예물, 기도제목

스타배우 이진우, “뇌출혈 겪고 신학공부”

1년 전부터 신학대학원 진학, 아내 이응경 기도과 응원 큰 힘



인기배우 이진우, 이응경 부부

지난 5월 뇌출혈 수술을 받았던 배우 이진우가 최근 방송출연 해 부인 이응경과 신앙으로 병마를 극복한 사연을 케이블 Y-STAR ‘스타뉴스’에 출연해 최근 근황을 전했다.

배우 이진우는 “뇌출혈 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알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뇌출혈도 지난 해 9월부터 신앙 간증집회 때 알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뇌출혈 수술 후 5일 만에 당시 촬영했던 드라마 일정도 차질 없이 받았던 그는 “화려한 스타의 자리보다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며 “1년 전부터 한세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신앙인의 길을 걷는 데는 아내 이응경의 응원과 기도가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아내 이응경 역시 지난 2005년 결혼 당시 힘든 기억을 신앙과 사랑으로 붙잡아 준 남편을 따라 1년 째 전국 교회를 다니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다며 그녀 역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뇌출혈로 수술실로 향하는 남편을 보며 건강하게 되돌아 올 것을 기도했다. 남편을 사랑으로 내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박지원은 대국민 사과 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하지마라!”

박지원은 국가관마저 개념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박지원은 이 정권에 대해 중국 공산당 부주석 시진핑이 “평화의 책방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을 사퇴하고 북으로 가라!

중국 공산당 부주석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보고 “평화의 책방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사실 진의 여부를 떠나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노골적으로 한 것에 대한 분개를 하지

못할 망정 김대중과 박지원이 한술 더떠서 그런 말을 대한민국 안에서 떠벌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오히려 “평화 책방꾼”이라면 좌익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그 원흉인 것이다. 어디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공산국가와 비교한단 말인가.



민주당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의부위원장

박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방관자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인권유린과 3대세습에 혈안이 된 북한 공산주의에 시너 노릇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 정당의 원내 대표인지도 의심스럽다.

엄연히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요, 국민의 선택으로 정부가 수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집배같은 박지원이 좌파정권하에서 시너 노릇이 모자라서 자유민주정부에 대한 도전이 요민방자하기 이룰때 없다.

정부는 박지원을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강력대응하라!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한 정권이지만 이런것 초차 그냥 넘긴다면 훗날 정권에 불과 할 것이다!

신승수 기자. sssnett@hanmail.net

양병열 목사 2010 성회 및 사역



- 순복음 총회신학원 교수
- 한국교회 비전위원회(CVC) 회장
- (지배)개혁교회(교회) 공동회장
- 순복음 부흥사역 선임총무
- 기하형 경기문자교회 총성회장
- 모란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추수감사

2010년 목표 : 2010명의 성도를 향하여!

www.mora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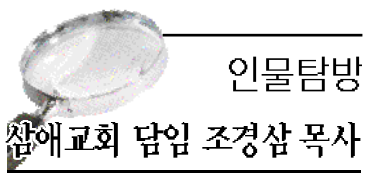
2010년도에 부족한 중을 불러 주신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성기했습니다.

- 양병열 목사 올림 -

여 · 호 · 와 · 깨 · 감 · 사 · 하 · 라 추수감사절

2010년도 일정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3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4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5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6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7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8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9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0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1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2월	신년축복무용성회	1월	신년축복무



인물탐방

샴애교회 담임 조정삼 목사

최고의 기도의 꽃은 새벽기도

예장개혁신교회 95회기 총회장 조정삼 목사, 그의 목회비결은?



개혁신교회 총회장 조정삼 목사(샴애교회 담임)

1)조정삼 목사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2-3년의 기간 어느 날 오래 간직되어 온 찬송가를 발견하고 당시 합동찬송 308장,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을 불러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겁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중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처음 출석한 그 다음날부터 총회장이 된 오늘까지 새벽기도에 결석이란 없습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많았습니다.
저는 최고의 기도의 꽃은 새벽기도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약제가 닥쳐와도 새벽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나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조 목사는
◆새벽기도를 통해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을 가졌다는 결심도 있었지요, 하지만 내전 엄청난 시련이요 고통들이 부친의 반대였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외로운 신앙이었지요, 조씨 집안에서는 최초의 신자였으니까요, 필박을 받으면서도 당시 합동찬송 순천노회에서 운영하는 성경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순천 성락교회를 출석하면서 엄청난 신앙훈련을, 영성훈련에 있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광주신학교(광신대)대학부에 들어가 공부했고, 결혼을 한다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바로 월남전에 파병을 받았습니다. 사실 목회는 22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월남전을 마치고 귀국해서 1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던 중 다시 광신대에 들어가 졸업했고, 홍신대 3학년편입되어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목회는 순천노회에서 1년 전담노회에서 6년을 했고, 후에 1979년에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샴애교

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부터 경기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신학교의 강의를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3) 목회철학 중에 하나는 교회의 행정은 당회중심, 원칙에 의해서
◆목회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도 장로교회의 정치에 입각한 목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교회의 행정을 당회중심으로 하되, 모든 것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의 제직회를 해도 반드시 동의를 받고 제정을 받고, 가부를 물어서 합니다.
제가 시무하는 샴애교회는 적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 법입니다. 경건노회 노회장을 두 번하고 서기를 다섯 번을 했어도, 항상 주장하는 것은 총회이든 노회이든 당회이든 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 목회의 비전에 대해서?
◆예, 소망이 있다면 교회를 옮겨서 새롭게 하고 싶은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시무하는 교회는 인왕산 중턱에 있는데, 길도

없고,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비전인 소망이 있다면 좀 더 넓은 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목회의 비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5)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항상 주님은 내편이 되신다.
◆제가 체험한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남전에 파병이 되었을 때 신앙고백은 한국에 계신 나의 하나님은 월남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내편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씨 성을 가진 집안에 혼자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조씨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장



로가 2명, 목사가 2명인데 또한 형제가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3명입니다. 또한 사촌 가운데도 목사가 2명이 있구요. 그렇게 신학교를 가지 못하게 반대를 했던 작은 아버지가 장모가 되었고, 이번에 은퇴를 하셨지요, 또한 저는 목회에 있어서 물질에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74년 예수복로 여의도 대회는 한국교회에 대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대 각성 운동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대형집회의 성격은 주최자들의

자기선전을 위한 집회가 되고 맙니다. 물론 진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도 있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이 실천하지 못한다면 위선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때 갈등을 느끼기도 했구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내가 한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역시 목사가 되는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벽기도는 너무도 좋습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먼저 새벽 기도에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 회의에 임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살렘!

월드비전 60주년.. 전쟁과 폐허의 땅에 나눔의 꽃 피우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월드비전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받은 사랑을 세계에 돌려줄 수 있게 된 것, 후원자들 덕분에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월드비전의 60주년을 축하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최선규 아내로서, 정애리 월드비전 친선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월드비전한국의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캐빈 켈킨스 월드비전 국제총재와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의 딸인 마릴리 던커 피어스 여사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기념식에서 인사말에 나선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은 “6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싹튼 씨앗이 잘 성장해 이렇게 환갑을 맞이하고

또 받은 사랑을 세계에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준 우리 후원자들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후원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캐빈 켈킨스 월드비전 국제총재는 “밥 피어스 목사님께서 매달 25달러씩 보내주던 작은 씨앗이 이제는 매년 1,240억 원(1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월드비전이 매우 짧은 기간에 모금을 많이 하는 주요 회원국가로 성장한 것은 많은 이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릴리 던커 피어스 여사는 “아

버지가 온 열정을 바치셨던 월드비전에 함께하게 되면서 전쟁으로 황폐했던 한국 땅에 놀라운 나눔의 결실이 풍성히 맺혀지는 것을 목격해왔다”면서 “이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든든한 지지자요 후원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구호와 개발 현장에서 UN의 가장 큰 동반자로서 ‘지질 줄 보르는 열정으로 전 세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나라와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나눔대사 1호로 1992년부터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의 ‘어머니’가 된 김혜자 친선대사가 월드비전 국제총재 특별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대의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성장
60년 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월드비전은 현재 전 세계 1백여 개국에서 1억 명의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구호, 개발, 응호사업을 진행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성장했다.
창립자인 밥 피어스 목사는 한 국전쟁으로 폐허 속 거리를 헤매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 같은 마음과 비전을 품고 있던 영락교회 한 경직 목사를 만나 함께 피난민 구호사업을 시작했고,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상황을 담은 기록영화를 찍어 미국에서 모금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시작된 구호사업은 일시

적인 구호를 넘어 고아와 미망인들을 위한 보육원을 지원하고, 폐허의 후원자와 국내아동결연을 통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1970년대에는 사회에서 차별받던 음성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6곳의 음성 한센병 환자 정착촌을 선정해 대한민국의 한센병 퇴치에 크게 기여했으며, 1980년대에는 산업화로 인해 가정해체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설아동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지역개발사업을 전개했다.
1991년, 월드비전은 40년 동안 해외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던 것을 중단하고 국내와 세계 이웃을 우리의 힘으로 돕기 위해 ‘사랑의 뿔’ 저금통 캠페인을 벌였다.
뿔 모양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국내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모금저금통이자, 현재의 대한민국 나눔문화를 이끈 선도적인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4년 국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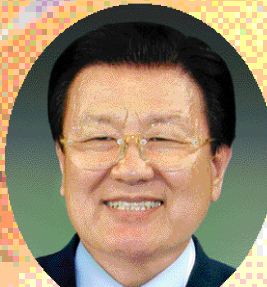
월드비전 창립 60주년 기념식

초로 민간차원 대북지원을 시작했으며, 4개 지역에서 씨앗자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농업기술협력을 위한 농업과학신포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자립하여 해외를 돕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2001년, 월드비전은 국제구호를 개설해 해외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보다 전

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아동권리사업을 시작했으며, 한국 국민이 지구마을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아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축추수감사절

천양치유사 2급과정 무료교육 제26기생 모집

고문:  피종진 목사

총재:  장창윤 목사

서울본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지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구로보건소 옆 010-5678-9950 인천: 제물포역 앞 010-7134-9687

한국기독교천양치유협의회(www.0675.us) 서울본부(0675us.onmam.com) 인천지부(naver · cafe0924)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여성회장



주은혜 목사

사무총장



정대중 목사

인천지부장



황창식 목사

총동무회장



김동화 목사

총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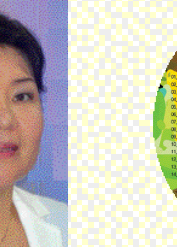
송정숙 목사

지247회장



김혜영 강도사

지26기회장



제갈경은 전도사

〈CD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주세요 1장당 만원 택배비 무료〉






서울찬양신학연구원 - 설교와 찬양 실기전문교육 전학생 장학금 60% 제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3181.0nmamm.com 전화: 011-710-9347

축 2010 추수감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골로새서 2장 6~7)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00-11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1번지 hp 011-364-428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이경찬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80-950) 충북 충주시 교현1동 484-15 hp 010-7660-9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52-871)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30-100 hp 010-9492-177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중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53-859)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0-460 hp 010-3240-4713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인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10-8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9 원스런 301호 hp 011-2972-7859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동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수내빌딩 5층 hp 010-3136-0697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천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김중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43-8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34-11 hp 011-9991-6288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김성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3동 149-1 hp 019-633-171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장광수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13-758)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송양보와즈 212동 507호 hp 010-4227-1170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성동 대림프리자(고)7층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심순범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05-808)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80-11 hp 010-5674-77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22-878)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hp 010-4270-3462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22-8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hp 010-4166-23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김영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30-85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7-35 안양빌라7동201호 hp 010-4282-04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부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박용학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76-873) 충북 보은군 신외면 장대2리 hp 011-9805-446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서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이종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50-762) 경기도 평택시 압정동 742-17 hp 010-2740-157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조철준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73-873) 전북 군산시 문외동 549-21 hp 010-3944-94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노회 축 성노회 노회장 정승룡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836w. 8th st. #101 Los Angeles CA 9005 CA 9005 hp 013-0299-0688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암교회 축 단합대회 담임 신현창 목사 외 교우 일동 (585-851) 전남 함평군 염대면 산정리 1구160 Tel 063)564-4001, hp 010-8602-30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축 추수감사 담임 이원석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교도 (130-874) 서울시 동대문구 위경2동 52번지 현대상가 3층 301호 Tel 02)245-8767, 8766 hp 017-717-44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일장로교회 전북지사 축 추수감사 담임 박주성 목사 본지 전북전주 지사장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898-11 Tel 063)241-9182, 242-0134 hp 011-659-1016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길교회 경북대구지사 축 추수감사 담임 이상락 목사 본지 경북 대구지사장 (700-210) 대구시 중구 아서동 28-1 (아리교로28동) Tel 053)628-3689 hp 010-8616-0889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사랑교회 중부지사 축 추수감사 원로 박양우 목사 본지 중부지사장 (302-161) 대전시 서구 도마동 129-16 Tel 042)321-7340 hp 010-2872-4357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교회 중부지사 축 추수감사 담임 양승섭 목사 중부지사 상임총무 (302-819) 대전시 서구 도마동 51-28 Tel 042)532-3622 019-436-3622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장지구촌교회 축 추수감사 담임 이흥규 목사 웨신 부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150-05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322-33 Tel 02)845-3376, 848-3376 hp 017-711-3376

축 대한예수교 추수감사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전도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웨신총회 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0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중생 = 감절의 선교

탐임목사 : 이재갑
장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김영주, 오정순, 김성임, 박에스타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축 추수감사

『화합과 단결로 힘 있는 중앙노회로 전진하자』

노회장 정기남 목사 외
임원 및 노회원 일동

중앙노회장 정기남 목사
(JTN방송 지지스티입즈 대표)
(연남교회 담임)

지경을 넓히는 중앙노회

(138-819)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Tel 070-8230-0032, 34, 010-5468-6574

라이즈월드 선교협의회

축 추수감사

총재 : 이주호 목사 (동탄사랑교회)
강사단장 : 심용기 목사
문화원장 : 전 아 목사
본부장 : 이상호 목사

수석상임회장 : 김학문 목사

상임회장
오봉석 목사 최요셉 목사 임연재 목사 정철호 목사
최종대 목사 김학연 목사 류준모 목사 나요한 목사
김민준 목사 김준수 목사

문화부원장 : 이명찬 목사 전영호 권사
실무회장 : 이명호 목사 조태원 목사
실무총무 : 이우호 전도사

대표회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본지, JTN방송 사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5
대표회장 Tel 02)3391-9676 사무총장 02)899-9107

10주년을 맞은 향기로운교회 임직감사예배 드려

김용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장로장립과 안수집사장립 등 권사취임을 가진 축제의장이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정일량 목사)본당에서 설립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가운데 원로목사 추대와 장로, 집사장립을 비롯해 권사취임 등 임직식이 거행됐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향기로운교회가 10월16일(토)오후 2시 설립10주년 및 임직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1)는 말씀을 주제삼아 손백두 목사(사랑의빛교회)사회로 설립10주년감사예배가 시작되어 부노회장 김병호 목사(산소방교회)가 기도를, 서기 양현모 목사(살롬주사랑교회)가 마11:28-30, 고전 4:1-2절을 봉독했다.

이어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는 후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오라 그리고 가라"는 제자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성 총회장은 향기로운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임직받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며,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성장하는데 모두가 힘써야



향기로운교회 담임목사 정일량

편다고 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를 도와 잘 섬기며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축원했다.

성 총회장은 또한 부흥하는 비결은 전도하는 데 있다며, 성도들은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을 전파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이어 늘사랑교회 손성규 목사가 봉헌기도를 하고, 전민영 형제가 봉헌찬양을 했다.

2부 임직식에서 담임 정일량 목사는 김용진 목사를 본 교회의 원

로목사로 추대하고, 김 원로목사의 인력소개와 추대사가 있었다. 아울러 중앙노회장 손찬현 목사가 김용진 목사를 본 교회의 원로목사 된 것을 공포하고 기도했다. 이어 담임 정 목사는 김 원로목사에게 원로목사 패를 증정하였으며, 남전도회장 손전도 집사의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최문호, 유봉철 씨를 장로로, 손경현, 배하성 씨를 안수집사로 안수하고 임직자로 세웠다. 아울러 신에스터, 박영숙, 전요안나, 정순옥, 유순덕 성도를 권사로 명예권사로 서약하고 취임했다.

이날 예장백석총회 총회장 노문길 목사와 UN평화대학총장 홍성선 목사는 축사에서 설립10주년을 맞은 본 교회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일량 목사와 유성은 목사의 기도와 수고에 크게 치하하면서 임직자들을 축하하며 향기로운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을 기원했다. 중앙노회 교문 임철환 목사의 권면이 있었으며, 웨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의 축도와 담임 정일량 목사가 폐회를 선언하고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정일량, 성홍경, 임철환, 손찬현, 김병호, 양현

모, 손성규 목사 등이다.

한편 정일량 목사는 인터뷰에서 "향기로운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대로 지나왔을 뿐입니다."

10년 전 오늘 원로목사로 추대받으신 김용진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역할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목회자로 길러주시고 지도해 주신 은사님이요 존경하는 김용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안되는데 총회에 말씀을 드리고 20주년은 안되

었지만 10주년을 맞이하여 김 목사님을 원로로 추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제관계이기에 승낙을 받고 10월16일(토) 오늘 원로목사님으로 김용진 목사님을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김 목사님 내외분을 본 교회에 모시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원로목사님 내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주년에서 20주년을 향해 전진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



(우)원로 김용진 목사 (좌)담임목사 정일량 목사



10주년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기념촬영

는 부족하지만 사역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교회는 주일 출석교인이 90명쯤 되지만 그러나 등록된 교인들은 약 300명쯤 됩니다. 또한 저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타 교회에서 오신분들까지 많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특히 유성은 목사님이 부교역자의 역할을 다해 주기 때문에 부목사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하는데 열정이 넘치는 유 목사님입니다.

또한 원로로 추대를 받은 김용진 목사는 정일량 목사와 유성은 목사를 칭찬하면서 부족한 사람을 정일량 목사가 원로로 추대해 주신 것에 대해 몸 풀바를 모른다며 감사를 했다. 아울러 정 목사를 도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것을 약속했

다. 한편 정일량 목사는 "교회를 성장 시킬에 있어서 내게 특별히 어떤 비전은 없습니다. 곳이 비전을 말한다면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무엇을 시키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충성을 다해 사역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향기로운교회의 비전"입니다.

10주년을 맞아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집사를 장립하고, 다섯 분의 명예권사와 권사를 취임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향기로운교회의 정일량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신)총회 회록부서기를 맡고 있으며, 중앙노회 노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매주 주일오후 3시, 수요일은 영락원에서 많은 노인들을 돌보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JTNT방송과 지저스티임즈 운영이사를 맡고 있다.

중앙노회 화합과 단결로 힘 있는 노회로 전진하자

신임 노회장 정기남(JTNT방송 지저스티임즈 대표)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신) 중앙노회가 제23회기 정기노회를 10월 21일(목)오전11시 경기



노회장 정기남 목사

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전원중앙교회(정기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서기 양현모 목사 인도로 1부예배가 진행되어 중경노회장 윤동남 목사가 기도를, 이기수 목사는 사무예상 12:1-4절 말씀을 봉독하고, 노회장 손찬현 목사가 "흠 없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어 회계 손성규 목사(늘사랑교회)가 봉헌기도를 중경노회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은 중경노회장 임철환 목사 집례로 시작하여 강석홍 목사의 기도가 있었으며, 분병, 분찬위원은 손백두 목사, 최재필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의장 손찬현 목사 사회와 기도도 회무처리에 들어가 서기 양현모 목사가 회원집명 후 개회가 선언되고, 총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가 배석하여 제23회기 중앙노회 정기노회를 축하했다. 이어 회순채택이 있

은 후 오후 2시까지 정회되었다.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고 회무가 진행되었으며, 임원선출에서 노회장 정기남 목사(연남교회), 부노회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 서기 현병우 목사(임마누엘선교교회), 부서기 최재필 목사(행복을 주는교회), 회의록서기 양현모 목사(살롬주사랑교회), 부회의록서기 이기수 목사(사랑선교교회), 회계 손성규 목사(늘사랑교회), 부회계 정광철 목사(생명의빛교회), 감사 임철환 목사(갈보리교회), 김용진 목사(향기로운교회 원로) 등이 선출됐다. 이날 모든 신안건토의를 마친 후 총회와 노

회 발전을 위해, 지 교회, 신학교 변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노회장 정기남 목사 축도로 마쳤다.

중앙노회는 이날 여성 목사 수의 건에 대해 참석한 노회원 25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특히 노회확장을 위해 7인의 영임위원을 무비 정치부에 위임했다. 이 외에 노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사무비 및 판공비를 30% 상향조정 했으며, 노회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준회원으로 강등시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노회장 정기남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무



성노회를 마치고 정기남 노회장과 임원들이 기념촬영

게 감사했다.

정 노회장은 노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나가고 영성을 목적으로 타 노회와의 교류를 해 나아갈 것이며, 노회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덕과 질서차원에서 또는 헌법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노회원화 되어나가고 영성을 목적으로 타 노회와의 교류를 해 나아갈 것이며, 노회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덕과 질서차원에서 또는 헌법을

명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금은 딱딱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야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회의 발전과, 총회를 받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써 일할 것을 다짐했다.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 a

표어 : 충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량 목사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원로목사 김용진,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토브교회

표어 :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대상4:10)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담임 김광식 목사

예배시간 및 성경공부

주일 낮예배	오전 11시	유, 초등부예배	오전 9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1시30분	학생부예배	오후 5시
수요기도회	오후 8시	청년부예배	오후 4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매일 기도회	월~토 오후 8시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구역모임	목,금요일(각 구역별)

섬기는 사람들 : 김광식 목사, 은 성도

교회 오시는 길 : 선바위역 앞 하차

4호선 선바위역 2번출구 150m

sk경마장주유소골목 선바위 미술관 위 50m